

5일이면 될 고구마 도입 179년 걸렸다

고구마의 이동을 통해 본 16~18세기 동아시아 해양인식 목포대서 학술대회

조선 海禁정책에 해양교류 막혀 中→日 거쳐 1763년 한반도에 선진문물 수용 늦어 고립 초래

고구마 이동 노선과 시기(년)



고구마는 감자와 함께 입을 즐겁게 하는 스프레드이자 간식거리다. 조선 시대에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할 때 배고픔을 해결하는 주요 구황(救荒)작물이기도 했다. 국사시간에 고구마 종자는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조엄(1719~1777) 선생이 대마도에서 들여왔다고 배웠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김인희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최근 목포대에서 열린 '섬의 인문학' 학술대회에서 '고구마의 이동을 통해 본 16~18세기 동아시아 해양인식'이라는 제목의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16세기에서 18세기 선진문물을 대표하는 작물인 고구마의 이동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해양인식의 차이가 결국 근대화로의 이행에 성패를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고구마'를 중심으로 한 동양 3국의 해양인식이 어떠한지 주제논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고구마, '효자마' 일본어 발음에서 유래=조선 고구마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됐음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조엄 선생은 '해사일기'에서 "쓰시마에 뿌리가 있는데 먹을 수 있으며, 감저(甘藷) 또는 효자마(孝子麻)라 하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고구마라고 한다"라고 기록했다. 효자마의 일본어 발음은 '고꼬마'로 한자로 고구마(古古麻)라고 썼다.

이규경(1788~1863) 선생이 쓴 백과사전 형식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고고리문의(古古里文)라 한다. 일본 방언에서 효자를 고고이(古古伊)라 하고 토란을 문외(文外)라 한다. 예전에 효자가 고구마를 심어 부모를 부양했는데 고구마가 토란과 같이 생겨 이와 같은 이름을 얻었다"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도에서 고구마를 많이 심기 때문에 고금이(古今伊)라고 한다"고 또 다른 설도 소개하고 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고구마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을 거쳐 동아시아에 소개된 때는 ▲중국 1584년 ▲일본 1698년 ▲조선 1763년이다.

중국에 전해진 고구마가 일본 본토로 유입되기까지 138년, 다시 조선에 전해진 때는 179년만의 일이다. 고구마는 필리핀의 루손에서 중국 광둥성에 도착해 푸젠성을 거쳐 오키나와 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가고시마와 나가사키에 이른 이후 쓰시마를 거쳐 부산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고구마의 이동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

된 것은 왜 그럴까? 김 교수는 이러한 요인에 대해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에서 답을 찾았다.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김 교수는 "고구마의 이동이 당시의 해상활동과 관련이 있고, 느린 속도로 진행했다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사회의 해양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시기에 일관되게 해금(海禁)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에 고구마가 유입된 시기는 명나라 말기 해금을 취소하며 해외무역이 번성하던 때였다.

일본은 해금정책이 늦은 시기에 시작됐고, 사(私)무역을 동반한 조공무역의 형태로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개방적인 형태였다. 특히 '화이(華夷)정신'을 배제하고, 오랑캐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사이(師夷)정신'을 발휘해 서구 과학문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근대화에 성공해 아시아의 제패국이 됐다.

반면 조선은 명·청보다 더 강력한 해금정책을 시행했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교류하던 시기에 조선은 홀로 바다를 닫고 좁고 느린 육로를 통해 오직 중국과만 교류했다. 조선 중·후기에 들어서는 '소중화'라 부르며 폐쇄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김 교수는 "고려시기라면 중국 남부에서 한반도까지 5일만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고구마가 179년이 걸려 조선에 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정책은 고구마와 같은 중요작물, 즉 선진문물의 수용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낳았고 결국은 각국의 운명을 갈라 놓았다"고 강조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바다·생태 스토리텔링 3D 애니메이션 어린이바다과학관 연내 제작

목포시가 바다와 생태를 스토리텔링화한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발 벗고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어린이 바다과학관' 3D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에 따른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종득 목포시장과 윤진보 부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정경 전남도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획 방향을 점검하고 컨셉, 스토리, 디자인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지난 4월 29일 착수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제작사인 (주)레드로버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기획의도는 목포의 바다와 생태를 스토리텔링해 목포를 콘텐츠 도시로 브랜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캐릭터를 제작하고, 국내외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자연사박물관 9~13일 임시 휴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박물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홀 등 3개소의 내·외부를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대형 전시품인 흑등고래(11m, 2t), 바다거북(5.2m, 1.5t) 등을 비롯해 총 18종 21점의 전시물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생활도자박물관과 문예역사관도 함께 휴관한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연안 여객선 승선권 발권 대폭 강화

1일부터 연안 여객선 승선권 발권이 대폭 강화됐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룡)은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어린이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 발권을 1일부터 전면 실시했다. 또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승선권 전산 발권에 따라 발권 전 대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 등 승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이어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승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승선시킨다.

이번 조치는 지난날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확인된 무단승선자 등 승선자 명부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졌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1983년 첫 발족...서남해 섬문화 체계적 연구 중심 역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원장 강봉룡)이 서남해 도서해양문화 연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1982년 4월 도서해양문화에 관심있는 교수들이 첫 모임을 갖고 목포대의 입지적 특수성을 살려 서남해 도서와 해양문화 연구에 뜻을 모아 같은 해 7월 25~8월 1일 신안군 압태도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3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30여년간 연구원은 우리나라 도서와 해양을 대상으로 도서해양문화 조사·연구를 실시, 문

화적 기반과 성격을 구명하고 다양한 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4월 '섬의 정치학'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연대 이어 최근에는 '섬,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주제로 '섬의 인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서문화연구원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인문한국(HK) '섬의 인문학' 과제의 연구성과를 학계에 발표하고, 연구자들간 학문적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구마의 이동을 통해 본 16~18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김인희



HK연구교수)을 비롯해 ▲19~20세기 제연축제를 통한 압태도 주민들의 경제생활(김경옥 HK교수) ▲천일 염전의 개발과 섬 : 지형변화, 이주, 기술전파, 경제활동(최성환 HK교수) ▲글로벌 기후 변화와 어장(홍성기 HK교수) ▲어업경제의 변화에 따른 마을공동체(한은선 연구교수)

등 8편의 주제발표로 나눠 진행됐다.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은 "향후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섬 연구를 새롭게 개척하고 그 성과를 학계와 사회에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획공인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신(D) 대신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뽕쟁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